영적 지도력의 본질로서의 성령의 열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ruit of the Spirit as the Essence of Spiritual Leadership

임 영 효**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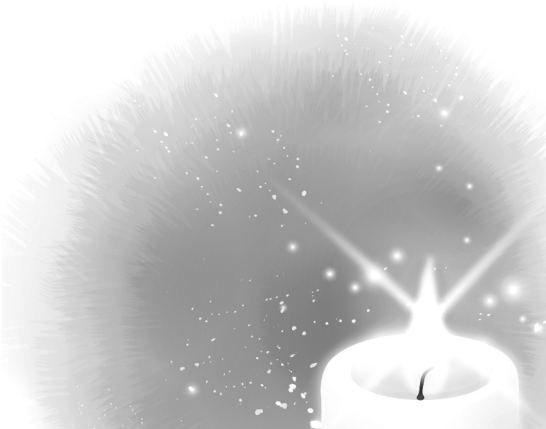
목 차

1. 서론 | 365

2. 성령 충만의 증거로서의 성령의 열매 | 367

3. 리더가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 | 371

4. 결론 | 415



요약

영적 지도력의 본질로서의 성령의 열매에 관한 연구

본고는 영적 지도력의 관점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영적 지도력의 본질로서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 보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적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터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영적 리더로서의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이 소속한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이런 저런 형태의 리더로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위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서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고, 또한 이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할 것을 친히 요구하셨다. 섬기는 영적 리더십의 본질로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능력있는 리더의 자질 가운데 성품이 근본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성숙한 성품이 없이, 카리스마만 있거나 이름만 가지고 있는 리더는 리더로 불릴 자격이 없으며, 성품과 역량은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에야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성과를 거두게 되어짐을 가르쳐 주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인 리더십 훈련기관(J.D. Hunter Associates, LLC)의 책임자로 있는 제임스 C. 헌터(James C. Hunter)는 사랑이 섬기는 리더십의 본질임을 밝혀주고 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리더십의 8가지 본질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과 일치되어지고 있다. 리더십은 개인의 인격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며 리더십 개발과 인격개발은 결국 하나다.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성숙한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사랑의 여러 가지 특성들과도 일치되어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리더로서 사역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가장 온전히 맺으신 분이셨기 때문임을 복음서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그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사람이 예수님을 참으로 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 리더로서의

요약

자격을 갖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이야말로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할 때, 영적 리더의 성품개발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성품의 9가지 열매들은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자력으로 개발하거나 마스터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질 수 있는 영적 리더의 필수적인 성품인 것을 성경은 깨우쳐 주고 있다.

섬기는 지도자의 사역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며, 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일이 아니라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영적 리더로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육의 사람이 죽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풍성히 맺어갈 때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적 리더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과제요 책임임을 인식해야 한다.

* 본 논문은 2012년 고신대학교의 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고신대학교 신학과(Th. B.)를 거쳐 동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 Div.)학위 취득.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으로 신학석사(Th. M.), 선교학 전공으로 선교학 박사(D. Miss.),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의 기초에 관한 선교학적 연구"로 선교신학을 전공하여 철학박사(Ph. D.)학위 수여받음. 현재 고신대학교 신학과에서 실천신학 및 선교학 담당 교수인 동시에 고신대학교 선교목회대학원장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개혁주의 교회성장학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A Study on the Fruit of the Spirit as the Essence of Spiritual Leadership

주요어

성령의 열매, 영적 리더십, 영적 지도자, 성령충만, 성품, 역량, 섬기는 지도자, 영적 성장

Abstract

A Study on the Fruit of the Spirit as the Essence of Spiritual Leadership

Prof. Dr. Young-Hyo Im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the fruit of the Spirit is the essence of spiritual leadership and this is the most important part all the spiritual leaders should pursue. And this paper's premise is that the spiritual leadership is a servant leadership and all the Christians are called as the servant leaders that should serve in their working places.

Our Saviour Jesus Christ showed to His people this serving attitude as a model.

He also required that His people should practice this servant leadership. The fruit of the Spirit as the essence of spiritual leadership indicates that among the qualities of the able leaders the human character is fundamental. If a person who has a problem in human character becomes a leader in the community, there will be conflicts, sufferings, and negative effects in the members

James C. Hunter, the representative of J.D. Hunter Associates, LLC which is one of the famous leadership training institutes, maintains that love is the most important essence of the servant leadership. The eight essences of leadership which he shows

coincide with the fruit of the Spirit. Therefore, practicing the leadership means bringing a person's character into action. Also the leadership development and the character development are equal. So it can be said that the fruit of the Spirit portrays the spiritual leader's figure. In addition, the fruit of the Spirit is in accord with the various characters of love which the thirteenth chapter of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From this research, it is found that the character development of a spiritual leader is indispensable. The four Gospels disclose that Jesus accomplished His ministry because He bore the fruit of the Spirit in its fullness. However, the fruit of the Spirit is not outcome which a Christian himself can produce by his own efforts but the character which the Holy Spirit produces through a Christian who are full of the Word of God and the Spirit. Hence, for a spiritual leader God's full presence is necessary. In conclusion, it is the most important task and responsibility for all Christian leaders to bear the fruit of the Spirit continually.

Keywords | the Fruit of the Spirit, Spiritual Leadership, Fullness of the Spirit, Character, Capability, Servant Leader, Spritual Growth

1. 서론(Introduction)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이 소속한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이런 저런 형태의 리더로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마 5:13-16, 벧전 2:9).[1] 그런데, 성경은 영적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위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서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고, 또한 이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할 것을 친히 말씀하셨다(막 10:42-45, 요 13:13-15).

미국에서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는 비영리 단체인 "다이나믹 케뮤니케이션"(Dynamic Communication, Inc.)의 총재인 폴 시다(Paul Cedar)는 "우리 교회, 사업, 가정이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은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바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능력과 자원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는 것이다. ... 달란트, 책임 그리고 은사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지도자 유형이 있다. 그것은 교회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 분은 이러한 지도자상을 우리에게 시범 보여 주셨고, 이렇게 되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이 섬기는 지도자의 모델이다"라고 말 한바 있다.[2]

---

1) 케나다 벤쿠버의 리전트 대학(Regent College)의 리더십 교수인 월터 C. 라이트(Walter C. Wright, Jr)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의 저서에서 역설하고 있다. *관계를 통한 리더십(Relational Leadership)*, 양혜정 역, 예수전도단, 2002, p. 20.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임영효, *실천신학*, 도서출판 영문, 2008, pp. 281-282를 참고하라.

2) Paul Cedar, *Servant Leadership(섬기는 지도자)*, 김성웅 역, 도서출판 햇불, 1992, pp.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섬기는 리더십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역하셨기 때문인 것을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밝히 보여주고 있다(마 12:18, 눅 4:1, 14, 18, 요 3:34, 행 10:38). 또한 모든 시대에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섬기는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행 1:1, 8, 2:4, 6:3, 11:24, 엡 5:18, 빌 3:3).

"세상의 가장 영향력있는 리더십 원리"라는 저서의 저자, 제임스 C. 헌터(James C. Hunter)는 섬기는 리더십은 "공동의 최선을 위해 설정된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술[학습하거나 체득한 능력]인 동시에 사람들의 신뢰를 형성하는 인격"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리더십은 개인의 인격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며 리더십 개발과 인격개발은 결국 하나다. 인격은 올바른 일을 실행하는 것이다. 리더십 역시 동일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3] 로버트 클린턴(J. Robert Clinton)은 "기독교 리더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책임감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감화시켜 그 분의 계획하심을 따르도록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리더십을 정의하고 있다.[4]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적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터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영적 리더로서의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섬기는 리더십의 본질로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8-19.

3) James C. Hunter, *The World's Most Powerful Leadership Principle(서번트 리더십)*, 실전 매뉴얼 편, 김광수 역, 시대의 창, 2006, pp. 33, 53.

4) Eddie Gibbs, *LeadershipNext(넥스트 리더십)*, 이민호 역, 쿰란출판사, 2010, p. 39.

2. 성령 충만의 증거로서의 성령의 열매 (The Fruit of the Spirit as the Evidence of Fullness of the Spirit)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받아야 하는 3가지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다.

(1)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 하신 후에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에 나타나지는 결과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9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성령충만을 받으므로 가정에서 부부사이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 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2)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런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받아야 한다.

고후 3:18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바로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

(3) 그리스도인이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헌신하고,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에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시는 증인의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 사도 바울은 롬 15:18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고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고 초대교회에 주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았던 바나바가 안디옥교회 첫 번째 목회 사역자로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고 영적 리더를 교회에 세우시고 사역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처럼,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주님이 세우신 그 사역의 영역에서 영적 리더로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역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녀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을 항상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전적인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될 필수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가 되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 명령은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 기사를 행하는 이런 은사를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라, 이러한 은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받게 되는 것으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몸의 지체가 되어졌다는 표식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고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고 말씀하신 후에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을 분별하는 잣대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20세기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J. I. 패커(Packer)는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신자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항상 '성령의 열매'(갈 5:22-23)를 요구하시고,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다.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표는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다. 그 궁극적인 판단 근거는 특이한 경험이 아니라 윤리적인 행위이다"라고 적절히 말하고 있다.[5] 그는 더 나아가, 방언의

5) James I. Packer and A. M. Stibbs, *The Spirit Within You*(*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정다울 역, 생명의 말씀사, 2010, p. 118

은사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증표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성령 충만 정도는 과거 경험, 현재 마음 상태, 또는 특별한 현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행동과 성품으로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6]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히 맺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다.

최근에 별세한 영국의 복음전도자요 설교자였던 존 스토트(John R. W. Stott)는 "20년 가량 나는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에 그것[성령의 열매]을 인용해 보고,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왔다. ... 내 생각으로는 이 본문[갈 5:22-23]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는 것 같다"고 성령의 열매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다.[7]

원문상으로 볼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성령의 열매는 단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별개의 구분된 열매들이 아니라 한 성령님에 의해 나타나지는 다양한 삶의 특징이고 행동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경신학자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처음 세 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는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들로 구분하고 있고, 두 번째 세 가지 열매들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들은 대인과계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들로 구분하고 있으며, 마지막 세 가지 열매인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은 대아관계 즉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들로 구분하고 있다.

---

6) Ibid., p. 126.

7) John R. W.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Applying God's Word to Today's World*,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2), p. 146.

3. 리더가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 (Ninefold Fruit that the Spiritual Leader should Produce)

(1) 사랑(Love)

이 사랑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하게 부여해 주시는 여러 은사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실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첫 번째 열매로서 나타나지고 있다. 고전 12장 31절에서는 이 사랑을 "제일 좋은 길"(the most excellent way)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각종 은사들이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원활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다. 이 사랑이 결핍되어질 때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과 분열이 발생되어지는 것임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사역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연합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통로가 잘 연결되어지도록 영적 리더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 영적 리더에게 사랑이 결핍되어질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발휘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허약한 병든 공동체로 전락되어지고 말 것이다.

성경은 영적 지도자는 사랑의 동기에서 사역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조반을 함께 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질문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고 목양의 사명을 주셨다(요 21:15-17). 이것은 영적 리더십을 행사하기 위한 유일한 필수조건이 사랑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으로 영적 리더에게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풍성히 맺어져야 함을 깨우쳐 주고 있다.

마크 베일리(Mark L. Bailey)가 언급한 대로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8] 요한 1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라는 말씀과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는 말씀과 같이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므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어질 때에 자신의 배우자와 직장의 구성원들을 말씀대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특별히 영적 리더에게는 그가 사역하는 구성원들을 인도하고 권면하므로 사역목표를 성취해 나가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권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함을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will in all things grow up into him)고 가르쳐 주고 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말하고 권면할 때, 진리가 진리로 받아 들여 질 수 있고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영적 리더로서 그가 쓴 짧은 유다서에서 3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유 3, 17, 20절)라고 사역 대상자들을 호칭하므로 자신이 거짓교사들과는 달리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권면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사도 바울도 영적 리더로서 고전 4:14에서 그의 사역 대상자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고전 15:58에서는 “사랑하는 형제들”로, 고전 10:14과 고후 7:1, 12:19에서는 “사랑하는 자들”로 부르면서 사랑의 중심에서 그들을 대하고 권면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cf. 빌 2:12, 살전 2:8).[9]

---

8) Mark L. Bailey, *To Follow Him: The Seven Marks of a Disciple(제자도의 7가지 핵심)*, 개정판, 도서출판, 2011, p. 231.

9) 사도 요한도 그가 쓴 요한 1서에서 독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6번이나

이와는 달리, 영적 지도자가 진리를 말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또한 사랑이 아닌 미움의 감정에 사로 잡혀서 어떤 일들을 행한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고전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Do everything in love)고 이 사랑 안에서 모든 사역이 진행되어져 나가야 함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대항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중심에서 가르치고 훈계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영적 리더에게 사랑이 왜 필요한가?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의 지도자였던 요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는 "사랑은 모든 덕있는 행실을 산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나 그 이웃을 향하여 모든 바른 의무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이는 진지한 덕행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의무들이 완전하게 수행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10] 그런데 요일 5장 1절에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Everyone who loves the father loves his child as well)"고 리더가 섬기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한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서 비롯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호칭하고 있으며(요1서 2:7, 3:2,21, 4:1,7,11), 요한 3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4번이나 사용하고 있다(요3서 1,2,5,11). 사도 베드로 역시 그가 쓴 서신들에서 여러 번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동일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벧전 4:12, 벧후 3:1,8,14,17).

10) Jonathan Edwards, *Charity and Its Fruits(사랑의 열매),* 서문강 역, 도서출판 엠마오, 1984, p. 19.

사랑하기 위한 은혜의 원천이 되어짐을 가르쳐 주고 있다(요일 3:16-19).

그러나 만일에 영적 리더에게 이 사랑이 상실되어진다면, 그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봉사와 큰 업적도 아무런 의미나 유익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에 사랑의 열매는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고전 13:1-3). 요나단 에드워드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큰일을 하고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진리라면, 우리 자신은 그렇게 순전한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지 자기성찰을 통하여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11]

고전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라는 말씀처럼,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이 사랑이 넘치게 될 때, 자신이 사역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유익을 진심으로 구하게 되어지고 맡은 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 특별히 영적인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구하는 자"(고전 10:24)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따라서 이 사랑의 정신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복락과 행복과 유익을 온전히 추구하게 되어지고 이 일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이다(고전 10:33). 요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은 공적인 권세를 지닌 사람들에게 공공의 유익을 구하도록 할 것이다. 곧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사랑의 정신을 가짐으로 그 관원은 공공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가정의 유익을 위하여 일을 해 나가는 것같이 그는 공적인 유익을 위하여 배려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 그리고 그리스

11) Ibid., p. 63.

> 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은 위대한 목자장이 자신에게 맡겨 준 양떼들을 위해, 그들이 잘 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들을 보살펴서 그들로 하여금 좋은 꼴을 먹게 하는 사람들이다. 사랑을 가진 목회자들은 그들 양떼들이 악한 이리와 짐승들에게서 보호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다.[12]

그리고 영적 리더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미치기 위해서는 사역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든든히 설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랑이 바로 이런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에게는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어야만 한다. 고전 13장 7절과 8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사랑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침착하게 견딘다는 의미이다. 즉 "사랑은 곤경이나 좌절, 그리고 절망까지 극복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용기 있고 의연하게 고난과 절망을 돌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13] 이처럼, 영적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이 사랑이야말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수용하게 하고, 함께 연합하게 하며, 단단한 결속을 지속시키는 접합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엡 4:2),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골 2:2),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골 3:14)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언제나 기쁨과 위로와 격려를 가져다주는 것이기에(몬 1:7), 이것이 영적 리더가 섬기는 공동체에 흘러넘치게 되어질 때 분열과 분쟁을 극복하게 되어지고 진정한 하나 됨을 이루어 나갈 수

---

12) Ibid., pp. 172-173.
13)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고전 제 10-16장*, 제자원, 2006, pp. 297-298.

있게 되어진다.

영적 지도자의 풍성한 사랑은 그가 사역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그들의 사역대상자들이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기를 즐겨했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음을 밝히면서(살전 2:8), 그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살전 3:12)라고 기원하고 있듯이, 영적 리더가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날 때에 구성원들 사이에도 이 사랑이 풍성해지므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살전 1:3, 4:9, 창 29:30). 이와 같이, 영적 리더의 사랑 충만한 사역은 건강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구약의 영적 지도자였던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부음을 받고 30세에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최소한 15년에서 18년의 세월동안에 혹독한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거쳤던 것을 볼 수 있다. 사울 왕의 추격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을 뿐 아니라 죽음 일보 직전까지 나아갔던 그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의 심령 속에 흘러 넘쳤기 때문에 넉넉히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마침내 위대한 영광과 부요함으로 옷 입는 왕으로서 40년 동안 리더의 사역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폴 시다(Paul Cedar)는 섬기는 리더는 예수님의 겸손함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면서 "내게는 준수하지도 박력있지도 않은 목사 친구가 한 명 있다. 그는 그저 그런 설교자이고 행정에는 장님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유능한 지도자로 손꼽히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는 예수님의 겸손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지녔다. 그는

누가 보아도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긴다. 그리고 그는 사랑함으로써 사랑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믿고 따른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의 태도는 올바르다"라고 예를 들고 있다.[14)]

이와 같이, 영적 지도자에게 이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자신이 섬기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진정한 유익을 구하게 되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 있는대로 선을 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며(갈 6:10),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려는 마음을 가지므로 사역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뿐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질 것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벧전 5:4).

(2) 희락(Joy)

이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전 1장 6절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언급되어 지므로 성령이 이 기쁨의 원천과 수여자가 되심을 가르쳐 주고 있다.[15)]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라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다(요16:22). 이 기쁨에 대하여,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J. I. Packer)는 "기쁨은 만족스러운 삶의 핵심이다. … 기쁨이 가득한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바라는

14) Paul Cedar, op. cit., p. 31.

15) 신약에 기뻐하다는 동사는 72번 나타나며, 기쁨이라는 명사는 60번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신약성경은 기쁨의 책이다," 윌리엄 바클레이, *성령의 열매*, 이희숙 역, 종로서적, 1988, p. 85.

사람은 누구나 영적 준비의 일환으로 기쁨의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다.16)

그러면 왜 이 기쁨이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느헤미아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이 기쁨 자체가 영적 지도자의 사역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임을 밝혀주고 있다. 존 파이퍼(John Piper)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업이 될 때 우리는 사랑의 사역을 위한 내적인 힘을 끝까지 공급받게 될 것이다"라고 적절히 언급하고 있다.17) 종교 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이나 조지 휘트필드(George Whitefield)나 청교도 목회자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같은 영적 지도자들은 모두가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이 기쁨이 그들의 사역에 지속적인 힘을 주었기에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에서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18)

이 기쁨이 영적 지도력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적 리더가 즐거움으로 사역에 임하지 아니하면 사역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시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존 파이퍼는 "목사가 양들을 감독하는 일을 기쁘게 하는 대신에 근심에 차서 하는 것이 유익이 없다면, 기쁨으로 자기 일을 하기를 추구하지 않는 목사는 자기 양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된다.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사역하는 것은

16) J. I. Packer, *God's Plan For You(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정옥배 역, 두란노, 2002, p. 158.
17) John Piper, *Desiring God(여호와를 기뻐하라)*, 김기찬 역, 생명의 말씀사, 1998, p. 6.
18) Ibid.

자기 교인들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영적 지도자에게 기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19]

일평생 동안 3천명의 고아들을 돌보았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George Mueller, 1805-1898)는 그 자신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

> 나는 매일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주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알았다. 첫째로 관심을 가질 것은 내가 주께 얼마나 봉사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주를 영화롭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내 영혼을 행복한 상태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 내 속사람이 얼마나 살질 것인가 였다.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 앞에 진리를 두려고 하고, 신자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고, 괴로워하는 자를 건지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마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행동하려 한다고 해도, 주 안에서 행복하지 않고 매일 내 속사람이 양분을 취하고 튼튼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올바른 정신으로 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20]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도 자신은 결코 희생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매일 하루 종일 나의 행복한 체험이었다. 하나님, 더욱이 나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밝은 실재이셨으며 내가 행하는 것은 즐거운 봉사뿐이었다"라고 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 선교 사역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던 것을 회고하고 있다.[21] 이러한 예들은 이웃사랑과 봉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흘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존 파이퍼는 "인간의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19) Ibid., p. 330.
20) Ibid., pp. 170-171.
21) Ibid., p. 327.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희락의 추구는 모든 선행에 대한 본질적 동기이다. 그리고 당신이 충만하고 영속적인 희락의 추구를 포기한다면, 결코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역설하고 있다.[22]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사역에 결실을 기대할 수 있기에 영적 리더는 그 삶 속에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한다.

빌립보 감옥 속에 투옥되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기쁨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옥 터가 흔들리고 매인 것이 다 풀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간수의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선교사역의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행 16:25-34). 신약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기에(살전 1:6),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와 봉사(살전 1:3, 4:9)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구약의 영적 지도자 모세 역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기쁨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히 11:24-26)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보스턴 감독교회의 목회자였던 필립스 브룩스(Phillips Brooks)는 "다시금 나는 설교자가 자신의 일을 철저하게 즐기는 것이 그의 성공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바 있다.[23]

C. S. 루이스(Lewis)와 존 파이퍼가 찬양은 "기쁨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영적 리더는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시편의 다윗처럼

22) Ibid., pp. 12, 156.
23) Ibid., p. 141.

찬양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시 71:23).[24]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인용하시면서 시편의 "권능"을 "찬미"로 변경하여 말씀하신 것은 찬양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적 승리를 가져다주는 무기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또한 스가랴 2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고 기쁨과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함을 깨우쳐 주고 있다.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런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주 안에 항상 거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빌 4:4).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25]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참된 기쁨이 주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시 19:8, 119:111, 렘 15:16).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 기쁨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요 16:24, 삼상 1:10, 2:1, 에 9:22). J. I. 패커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자기의 아버지로 모시게 된 것,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선물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을 즐거워하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하면서[26] "이같이 기쁨이 넘쳐흐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례여행은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만족과 열광적 기쁨을 경험하는 여행으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24) Ibid., p. 16.

25) 존 파이퍼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씀이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교체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분의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John Piper, *When I Don't Desire God(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 전의우 역, IVP, 2005, p. 149.

26) J. I. Packer, *Hot Tub Religion(제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특성)*, 서문강 역, 여수룬, 1989, p. 165.

경험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힘이 나올 것이다. 기쁨, 즉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따라서 그리스도인 삶의 기본적인 훈련, 영적 건강과 활력에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27)

(3) 화평(Peace)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화평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로서 신약에서는 일반적으로 "평강"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의 살롬의 번역으로 단순히 소극적으로 다툼이나 갈등이나 싸움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행복(spiritual well-being), 안전(security), 번영(prosperity), 건강(health), 온전함(wholeness), 부요함(richness), 전인의 구원(salvation of total person), 조화(harmony), 안식(rest), 자유(freedom), 신뢰(trust)의 적극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단어이다.

이 평강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 하신다는 확신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어떤 리더가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인가? 평강의 열매를 많이 맺는 리더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화평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터에서

---

27) J. I. Packer, *God's Plan For You(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정옥배 역, 두란노, 2002, p. 182.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장애물들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전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평강에 평강"이란 충만한 평강, 넘치는 평강, 부족함이 없는 평강, 완전한 평강을 뜻하는 표현이다. 이런 평강을 평강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선물로 허락하셔서 요동치 않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란타 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찰스 스탠리(Charles F. Stanley)목사님은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도 해결하실 수 있고, 어떤 질문이나 문제에도 답을 제공하실 수 있음을 진정 확신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위기에도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기 위한 온 우주의 모든 자원을 다 완비하고 계신다. … 하나님은 나의 힘과 필요와 보호,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성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기를 즐기신다. 내가 살아갈 미래의 매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해 나에겐 티끌만큼의 의심도 없다"라고 말을 한바가 있다.[28]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삶과 사역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받고 그 마음에 평강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또한 이 평안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사람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

28) Charles F. Stanley, *Finding Peace(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 평안)*, 이남하 역, 요단, 2004, pp. 12-13.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므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그 모든 난관들을 잘 극복해 나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평강의 열매가 그리스도인 리더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요소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왜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평안의 열매가 그 심령 속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평안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삶에 부딪혀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불안과 초조와 긴장을 소화하고 극복해 내기가 어렵게 되어지므로 사역의 과정에서 온갖 종류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의 건강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이 평안의 열매가 차고 넘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잠 14:30).

미국 델라웨어 메디칼 센터와 토마스 제퍼슨 대학교의 의과대학 신경학과 임상교수인 배성호박사는 그가 쓴 "두뇌 프라이밍"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평강의 효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체에 놀라운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실제로 병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면 몸의 건강회복에 필요한 내분비기관의 여러 호르몬들이 활발히 분비되어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부교감신경계통의 활동이 촉진되므로 위산과다증이 줄어들어서 위궤양이 낫고, 혈압도 떨어지고, 변비도 없어지고 협심증도 줄어들고, 만성두통 같은 여러 통증을 수반하는 병이 실제로 치유되는 결과가 주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29]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몸의 건강과 질병치유를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29) 배성호, *두뇌 프라이밍*, 두레시대, 1996, p. 121.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즉각적으로 병이 치유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 찌어다"(막 5:34)라고 전인적인 건강을 얻게 되었음을 선포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평안히 가라"는 말씀은 "평안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라"는 뜻으로 본문에 나타나는 평강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오늘 영적 리더로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올바르고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에 그 삶 속에 여호와 살롬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해서 이 평안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영적 지도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과감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므로 사역에 풍성한 성과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다(약 3:18).

그러나 영적 리더로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삶의 원칙과 법을 거역하게 되어질 때,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 평강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사 48:22).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로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심령 속에, 그리고 자신의 사역 현장에 이 평강이 소멸되지 않도록 살피고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평강을 주시고 그의 사역에 축복을 허락하심을 말씀하고 있다(시 25:12-13).

또한 이 평강의 열매가 섬기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사역 공동체 속에 풍성히 맺어지고, 이 평강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안전과 번영과 건강과 조화와 안식과 자유와 신뢰가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다. 대하 20장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때에 그 나라와 공동체가 태평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다.

따라서 참된 영적 지도자는 예수님처럼 맡겨주신 공동체 구성원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만 한다(눅 1:79).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바로 평강이 충만한 것이기 때문이다(롬 14:17).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말씀과 시편 119편 165절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 그대로 이런 평강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말씀의 원리와 그 내용들을 끊임없이 삶 속에 적용하고 행하는 실천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화평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때에 그의 사역 현장에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진정한 연합과 온전한 결속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엡 2:14, 4:3). 역대하 1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고 영적 지도자에게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될 때에 그가 사역하는 공동체도 평강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역에 놀라운 진보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약시대에도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초대교회의 경이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그 신앙 공동체가 평안(에이레네)을 가졌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런 평안의 공동체가 되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는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너희들

자신들 안에서 평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의미로서 영적 공동체의 지도자와 그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명령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개로드(Garrod)는 "어떤 교회도 그 구성원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서는 결단코 영적으로 자라갈 수 없다"고 적절히 말한바 있다.[30] 이처럼, 영적 공동체가 온전한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평강이 충만하여 화목하고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영적 리더에게 먼저 평강이 충만히 임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위에 찾아오심도 이 평강을 충만히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눅 2:14). 따라서 이 주님이 주신 "화평의 복음"(행 10:36)을 전하고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에게 평강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화평을 쫓지 아니하고, 화평이 없는 자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히 12:14).

(4) 오래 참음(Patience)

오래 참음은 "불행과 고생을 겪는 중에 끈기 있고 용기 있게 참다" 혹은 "타인들의 공격과 상해를 받는 중에 인내하다" "복수함에 있어서 온화하며 더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31] 프루머(Plummer)는 "자기가 받은 손해나 악한 행위에 대하여 화를 내지 않고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32] 따라서 오래 참음은 짜증이나 분노에 직면할 때 보복이나

30) G. W. Garrod, *The First Epistle to the Thessalonians,* (London: Macmillan, 1899), p. 135.
31) *성서원어대전: 헬 한 완벽사전 (III)*, 이병철 편, 한국성서 연구원, 1989, p. 722.
32) William Barclay, *Flesh and Spirit(성령의 열매)*, 이희숙 역, 종로서적, 1988, p. 101에서 재인용.

성냄에 쉽게 굴복하는 것을 거절하는 훌륭한 자질로 "꾸준히 참는 것"을 의미한다.33)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마크로두미아[오래참음]는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어떤 태도를 나타낸다. 아무리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인내심을 결코 잃지 않는 태도를 이 단어는 나타내 보여 준다. 아무리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을지라도 결코 그들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태도를 이 단어는 표현하고 있다. 아무리 상황이 어둡게 보일지라도, 아무리 사건의 전모를 알 수 없을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가 아플지라도, 결코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으며,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건들에 대한 태도를 이 단어는 나타내 보여 준다."34) 따라서 오래 참음은 "핍박 하에서도 조용히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하고, 분노가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상처를 받고, 아무리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려의 말을 거의 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불평 없이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35)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성품(출 34:6, 시 103:8, 롬 2:4, 벧전 3:20, 벧후 3:9)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특별히 영적 리더의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주님이 먼저 사도 바울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여 주신 것은 사도 바울도 영적 리더로서 그가 사역하는 대상자들에 대하여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증표로

33) Edmond D. Hiebert, *1 & 2 Thessalonians*, (Chicago: Moody Press, 1992), p. 253.
34) William Barclay, *Flesh and Spirit(성령의 열매)*, 이희숙 역, 종로서적, 1988, p. 101.
35) 한영철, *성령의 열매에 관한 주석적 연구*, 도서출판 알돌기획, 1997, pp. 213-214.

이 오래 참음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으며(고후 12:12),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 대한 고별설교 가운데서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다(행 20:19, cf. 고후 6:3-7, 딤후 3:7). 이러한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의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서도 영적 리더로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권면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딤후 2:24, 4:2).

디모데후서 2장 10절은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과 온전한 성화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으며,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영적 리더가 사역의 마지막 단계의 풍성한 결실과 승리를 소망하면서 사역한다고 할 때, 오래 참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깨우쳐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참된 영적 지도자는 이 땅위에서의 인정과 보상 보다 주님 앞에서의 인정과 상급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하는 자이기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필요한 것이다(롬 8:25). 더욱이, 영적 지도자의 사역의 과정에는 그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모함과 괴롭힘과 마귀의 공격과 시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역대상자들의 영적 미성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참는 사역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역이기에 사역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신 것이다(약 1:12).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은 오래 참음이 영적 리더의 사명완수의 필수 조건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존 파이퍼는 “인종차별과 낙태 같은 사회정의 문제, 온 세상의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 같은 세계 선교 문제,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같은 개인 경건 및 복음화 문제, 이런 문제들은 넘치는 에너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사람들에 의해 해결된다. 스프린터가 아니라 마라토너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중요한 사역들에 있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영적 리더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을 지적해 주고 있다.[36] 그는 오래 참음으로 사역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던 3 사람의 영적 리더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54년 동안 줄곧 한 교구만을 섬겼던 신실하고 복음주의적인 영국국교회 목사 찰스 시므온(1759-1836). 그는 사역을 시작한 이후 예배당 좌석을 차지하고 앉았던 교구민들의 냉대와 무시를 20년간 고스란히 견뎌내야 했다. 영국하원의원으로 신실한 복음주의자였던 윌리엄 윌버포스(1759-1833). 그는 흑인노예무역과의 20년에 걸친 투쟁 끝에 처음으로 승리를 맛보았던 1807년까지, 그리고 이후로 노예제도 자체가 불법으로 선포되기까지의 26년 동안(그가 사망하기 3일 전) [총 46년을] 오랜 수고와 시련을 인내로 살아냈다. 한때는 그 자신 흑인노예 중계상이기도 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아 '나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시까지 지은 존 뉴턴(1725-1807). 그가 보여준 인내의 삶은 시므온과 윌버포스에게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었다. … 그들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이르는 격동의 시기를 가장 건강하게, 가장 행복하게, 그리고 가장 영향력있게 살아낸 그리스도인들이다.[37]

이처럼, 기독교 역사상에 위대한 사역의 발자취를 남긴 영적 리더들은 모두가 인내로 결실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약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들을

---

36) John Piper, *The Roots of Endurance(인내)*, 신원섭 역, 좋은 씨앗, 2005, p. 10.
37) Ibid., pp. 7-8.

선포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그 재앙들이 몇 주나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다. 그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끊임없는 불평과 타락과 반역을 겪는 가운데서도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확신과 그 확신에서 나오는 인내가 있어야만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지도자는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성장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다. 영적 지도자는 문제들을 무시해서는 아니 되지만 그 문제들로 인하여 염려와 낙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넉넉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빌 4:6-7).

미국의 리더십의 전문가 스티븐 코비(Stephen Covey)는 "진정한 탁월성은 값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타고난 재능은 접어 두고라도 연습과 인내, 지구력이라는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38] 캘빈 쿨리지(Calvin Coolidge)는 오래 참음의 끈기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 재능도 끈기를 대신할 수는 없다.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천재성도 대신할 수 없다. 열매 없는 천재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뿐이다. 교육도 대신할 수 없다. 세상은 교육받은 낙오자들로

38) Stephen R. Covey, *Principle-Centered Leadership(원칙 중심의 리더십)*, 김경섭, 박창규 역, 김영사, 2001, p. 491.

> 넘친다. 오직 끈기와 결심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슬로건은 인류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39]

더욱이, 사랑의 동기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진 영적 리더라고 할 때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하여 오래 참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고전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게 될 때에 영적 리더 자신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리더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인 것임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약 1:4).

그러면, 오래 참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예외 없이 참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매튜 헨리(Matthew Henry)는 "만일 분쟁이나 상해의 조짐이 야기되기 시작한다면 참아야 하며, 우리의 분노를 억눌러야 한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화를 절제하는데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비록 상대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귀하든지, 천하던지를 불구하고 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나 기대를 너무 강조해서는 안되며, 또한 우리의 울분을 폭발시키거나 또한 우리의 짐에 대해 불평해서도 안될 것이다. 다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사람을 좋게 생각하도록 애써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40] 이처럼, 오래 참음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바 될 때에 비로소 나타나질 수 있는 열매임을 알 수 있다.

아시아경제신문 사장이며, 언론인이자 리더십 전문가인 신현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39) Calvin Coolidge, *The New Encyclopedia of Christian Quotations*, comp. Mark Water, (Grand Rapids: Baker Books, 2000), p. 726.

40) Matthew Henry,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Colossians and Ⅰ & Ⅱ Thessalonians.* Korean Trans. Ky Dok Kyo Moon Sa, 1979, pp. 552-553.

> 감투만 쓴다고 해서 저절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감수의 크기, 양보의 크기, 희생과 인내의 크기도 함께 키워야 한다. 양보한 것이 아깝지 않고, 감수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아야 한다. 그럴 수 있는 내공이 자라야 한다. 그래서 간부,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면, 일의 고단함보다 외로움이 더욱 견디기 어려운 법이다.
>
> 직책과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기꺼이 양보하고 감수할 수 있는 내공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와 울분을 극복하기 힘들 수도 있다. 리더가 이 스트레스를 시도 때도 없이 발산해 버린다면 조직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억지로 참는다면 속으로 곪아들어 깊은 내상을 입게 된다. 결국 그릇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양보와 감수를 훈련해야 한다. 얼마나 잘 훈련하고 소화해 내느냐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의 한계가 달라진다. 쉽지 않은 일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 리더가 되려면 꼭 치러야 할 대가, 그것은 바로 양보와 감수다.[41]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은 아마 모든 것 중에 가장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것을 기꺼이 받아 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교훈이기 때문이다"라고 적절히 말해주고 있다.[42]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약 5:8)고 말씀하고 있다.

---

41) 신현만, *능력보다 호감부터 사라*, 위즈덤하우스, 2011, pp. 183-184.

42) William Barclay, *The Letters to the Philippians, Colossians and Thessalonians*,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75), p. 207.

(5) 자비(Kindness)

자비라는 단어의 형용사인 "크레스토스"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영예로운 것, 모든 사람에게 친절함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고, 이 단어의 명사형인 "자비(크레스토테스)"는 우정(friendship), 친절함(kindness), 온화함(mildness)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43]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원문상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자비(크레스토테스)"라는 명사의 동사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자비(친절)하며"라고 번역해야 한다. 이렇게 자비 혹은 친절은 사랑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묘사되어 지고 있다. 이 자비(크레스토테스)는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인자하심"으로 로마서 11장 22절에서는 "인자"로 번역되고 있다. 친절이란 "타인을 향한 관심과 이해, 격려의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44]

존 맥아더(John F. MacArthur)는 "자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드러운(친절한, 동정심 많은) 관심(tender concern)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연약함이나 확신의 부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주님이 자신을 다루듯이 다른 사람들을 친절히 대우하려는 진정한 욕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45]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은 "하나님의 자비는 불행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46]

특히,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군(사역자)에게는 이 자비가 있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

43) *성서원어대전: 신학사전 (II)*, 이병철 편, 한국성서 연구원, 1985, p. 358.
44) James C. Hunter, op. cit., p. 108.
45) John F. MacArthu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Galatians*, (Chicago: Moody Press, 1987), p. 168.
46)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s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p. 200.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함을 명령하고 있다. 따라서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삶과 사역에서 이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은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를 선대하고 그의 필요를 조건없이 공급하는 것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할 행동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역대하 30장 9절에서는 자비는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도록 허락하는 행동으로 귀결되어짐을 묘사하고 있다. 시편 145편 8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자비는 조건없는 공급과 회복과 분노의 지연의 행동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크레스토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2절의 자비는 13절에서 용서하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자비는 불쌍히 여김(긍휼)과 용서의 행동으로 나타나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참고, 시편 51:1, 78:38, 사 54:8, 애 3:22).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하나님의 이런 친절[자비]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것은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친절[자비]이다(딛 3:4). 이것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친절이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친절로 미래의 선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다. 이것은 죄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인을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 그리스도인은 이 친절[자비]로 서로 죄를 용서해야 한다.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본받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다.[47] 이와 같이, 영적 리더에게 이 자비가 있을 때에 구성원들의 과오와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므로 그를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미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 수가 있게 될 것이다.

---

47) William Barclay, *Flesh and Spirit(성령의 열매)*, 이희숙 역, 종로서적, 1988, p. 111.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심하심(크레스테스)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은 자비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져 주시는 것으로, 호의(good-will), 친절(kindness), 자애, 인자(loving-kindness), 용서(forgiveness) 등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비는 이런 은혜의 다양한 의미들을 드러내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의미들을 고려할 때, 영적 리더가 사역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친절하고 동정심 있는 자비가 없는 지도력은 폭력이 되기 십상임을 알 수 있다. 지도력이 증대될수록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도 증대되어야 한다. 영적 지도자가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존중함으로써 그들은 놀랄 만한 생산성과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지도자의 자비의 행동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서의 사역자세로 나타나질 수 있어야 한다. 섬기는 자세는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자신이 사역하는 대상자들이 참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여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역이 되어져야 한다. 미국의 영성 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웬(Henri J. Nouwen)은 말하기를 “리더십에 대한 커다란 착각은 광야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광야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하며 그 이해된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바 있다.[48]

또한 영적 지도자는 할 수 있는대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훌륭한 점들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칭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교회의 사역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점을

48) 헨리 나우웬, *상처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 두란노, 1999, p. 101.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내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는 구혼자가 자신의 애인에게 하듯 교회 지체들을 대하려는 배려의 자세로 시종 여일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엡 5:25-27).[49] 헨리 나우웬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크리스챤 리더십의 처음이자 끝이 되는 핵심은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다. 진정한 순교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자신의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스스로의 상태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50]

더 나아가 교회의 진정한 성장과 진보는 갈등이 치유되고 잊혀질 때만이 가능하며, 교회의 구성원들은 지도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감동을 줄 때만 지도자를 따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구애자의 심정으로 자비함으로 구성원들을 대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가 "인간의 내면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숨어있다"고 말한 바와 같이, 영적 리더는 사역 대상자들에게 그들의 수고와 봉사에 대하여 인정과 감사를 표시하며, 격려하고 예의를 갖추므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51] 미국 위치타 주립대학의 경영학 교수인 제럴드 그레엄(Gerald Graham)은 자신의 조사결과 직장에서의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방법은 "관리자의 개인적이고 즉각적인 인정"임을 발표하면서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5가지로 1)

---

49) 존 맥스웰 외 29인, *효과적인 평신도 사역을 위한 30가지 양육전략*, 김창대 역, 기독신문사, 2001, pp. 343-351의 "교인의 호의를 사라"는 부분을 참고하라.

50) 헨리 나우웬, op. cit., pp. 100-101.

51) James C. Hunter, op. cit., p. 108.

관리자의 개인적인 감사 인사, 2) 관리자의 서면 감사, 3) 실적에 따른 승진, 4) 공개적인 칭찬, 5) 사기진작 회의임을 밝혀 주고 있다.[52] 리더십의 전문가인 제임스 C. 헌터는 "리더로서 존중을 표현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그들의 성장과 자기개발을 돕는 것이다. 적정 수준의 위임은 당사자의 기술과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다"라고 말하고 있다.[53]

(6) 양선(Goodness)

존 맥아더는 "양선은 아름다움과 능동적인 친절(자비)로서 알려지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탁월함(moral and spiritual excellence)과 관련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54] 윌리엄 바클레이는 양선이란 "사람이 마땅히 주어야 할 것 이상의 것을 베푸는 행위와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55]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나 자신의 행위로 획득하지 않은 것을 너그럽게 베푸는 관대한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열매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행위로서,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섬김(봉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함을 가르쳐 주면서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주신 은사를 따라 전문성을 개발해 나가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52) Ibid., pp. 222-223.

53) Ibid., p. 113.

54) John F. MacAthur, op. cit., p. 168. 양선(아가소쉬네)은 "선한 사람의 특질 혹은 도덕적인 탁월함을 의미한다." 이병철, *성서원어 헬 한 완벽사전(I)*, 브니엘 출판사, 1988, p. 187. 양선은 신약에서 4회 사용되고 있는데, 갈 5:22, 롬 15:14, 엡 5:9, 살후 1:11에 나타나고 있다.

55) William Barclay, *Flesh and Spirit(성령의 열매)*, 이희숙 역, 종로서적, 1988, p. 118.

기름 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위에서 행하신 사역을 "착한 일을 행하신 사역"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섬기는 사역"으로 언급하고 있다. 초대교회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바나바에 대하여 성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행 11:24)고 바나바는 그 삶과 사역에서 양선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었던 것을 소개하고 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섬기는 사역"과 "봉사의 사역"으로 언급하고 있다(행 20:19, 21:19). 또한 사도 바울은 교회 장로의 자격으로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라고 양선의 열매를 맺는 자가 영적 리더의 자격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딛 1:8, 참고, 딤전 3:1-7). 초대교회 다비다와 같은 여성도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를 통해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여성 리더였음을 보여주고 있다(행9:36-42). 또한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선과 모든 지식이 풍성하여 서로 조언하고 권면하며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칭송하고 있는데, 영적 리더에게는 이런 양선의 열매와 복음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함을 암시해 주고 있다(롬 15:14).

그러면 이 양선의 열매를 언제 맺어야 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는 "항상 선을 쫓으라"고 어떤 상황 가운에서도 양선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야 함을 명령하고 있다. 에드먼드 히버트(Edmond D. Hiebert)는 본문에서 "선을 좇으라"는 명령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방향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비(kindness)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τὸ ἀγαθὸν)은 단순히 착함의 윤리적 이상(理想)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 보다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행위들을 가리키고 있다. 신자들은 이런 친절한 행위들을 공공연

한 적대행위를 직면할 때에라도 그들의 끊임없는 추구로 삼아야만 한다."[56] 매튜 헨리(Matthew Henry)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늘 연구해야 한다. 타인들이 우리에게 선으로 대하든지 악으로 대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게 하고자 연구해야 한다. 타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그들에게 선을 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항상 타인들의 행복을 더하여 주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며 타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먼저 우리들 자신 가운데 이 행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힘써야 하고 그 다음 '기회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갈 6:10)"라고 말한다.[57]

이 양선의 열매를 효과적으로 맺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사역의 전문성을 개발해 나가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 시편 78편 72절에 "이에 저가[다윗이]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라고 구약의 영적 지도자였던 다윗 왕은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치리자로서 40년 동안 사역하였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전문성이란 성령님이 은사로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한 상태를 의미한다. 구약시대에 성막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전문성을 개발하므로 선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쓰임받았던 히람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로서 전문성을 통하여 봉사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인물이었다(왕상 7:14). 구약시대에 성전의 일에 수종들 재능있는 자가 모두 1760명이었다고 기록되고 있다(대상 9:13).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목적이 "거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벧전 2:9). 여기에 아름다운 덕은 헬라어로 "아레테"라는 단어로서 탁월

56) Edmond D. Hiebert, op. cit., p. 255.
57) Matthew Henry, op. cit., p. 553.

성(excellency)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사야 4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 할지어다"라는 말씀 가운데 영광과 찬송이라는 단어를 70인 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아레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행위들,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들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신분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다. "신앙인들에게도 잘 준비된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주는 힘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실제로 잘 준비된 크리스천이 그의 전문성으로 의료계, 법조계, 방송계에서 열심히 일할 때 일반 사람보다 훨씬 큰 영향을 사회에 미칠 수 있다."[58] 그러므로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특명을 받은 자들이다. 즉 전문성을 개발하고 배양해 나갈 때에 사역의 현장에서 양선의 열매를 탁월하게 맺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서번트 리더십"의 저자 제임스 C. 헌터는 "리더십이란 공동의 최선을 위해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또한 리더십은 타인의 욕구충족을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 타인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권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양선의 열매가 리더로서의 권위형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역설하고 있다.[59]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리더 자신이 먼저 그들에게 봉사해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58) 권호, *비상, 영성과 전문성으로 날아올라라!* 생명의 말씀사, 2010, p. 129.
59) James C. Hunter, op. cit., pp. 76-77.

을 받은 자"(엡 2:10)이기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딛 2:14)이 되어야 하며, 범사에 선한 일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딛 2:7). 그래서 히 10장 2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 13장 16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갈라디아서 6정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처럼, "양선이 적용되어지는 곳에서는 결과적으로 일이 더욱 잘되고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온전해지며 완전해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들은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60] 따라서, 행동하는 사랑으로서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될 것이고(롬 2:10),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 25:11)라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과 예비하신 상급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눅 6:35, 요 5:29, 잠 19:17).

(7) 충성(Faithfulness)

존 맥아더는 "충성은 성실(loyalty)과 신뢰할 수 있음(trustworthiness)과 관련된 성령의 열매의 나타남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61] 이 단어는 정직(honesty), 신실(faithfulness), 신뢰(trustworthiness), 충성(fidelity, loyalty)으로 번역되어질 수 있다.[62] 이 충성은 원어상으로 "믿음"(피스티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충성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신실함으로 본분을 다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믿음이 있는 자가 받은바

60) 한영철, *성령의 열매에 관한 주석적 연구*, 도서출판 알돌기획, 1997, p. 243.
61) John F. MacArthur, op. cit., pp. 168-169.
62) William Barclay, *Flesh and Spirit(성령의 열매)*, 이희숙 역, 종로서적, 1988, pp. 119-120.

직분에 신실하게 헌신하는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됨을 암시해 주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신 7:9)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 구약시대의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 시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충의(faithfully)와 성심(wholeheartedly)으로 맡은 바 일을 행하도록 명령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대하 19:8-9). 이러한 충성의 열매의 핵심인 신뢰는 정직과 성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정직과 성실은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시 25:21, 왕상 3:6).

성경은 이런 충성된 영적 리더들을 열거하고 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고(느 9:7-9),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영적 리더로서 충성의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민 12:7)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신하의 위치에 있었을 때, "충실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고(삼상 22:14), 왕이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성실함(integrity)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했음을 말씀하고 있으며(시 78:72), 하나님께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왕상 3:6), 그가 지도자로서 범죄 했을 때 자신의 심령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시 51:10).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왕하 18:3,7). 다니엘 역시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단 6:4)고 그 시대의 영적 리더로서 충성의 열매를 맺었음을 말씀하고 있다. 구약의 의인 욥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그의 신실함을 증거하고 있다(욥 1:1).

신약에 와서 구주되시고 주님이신 성자 예수님도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로 소개되고 있으며(계 19:11), 성부 하나님께 충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히

3:2). 사도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서신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충성)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하였고(딤후 4:7), 그의 제자 디모데도 영적 리더로서 “신실한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고전 4:7),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던 에바브라와 두기고는 “신실한 일군”으로 칭함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다(골 1:7, 4:7). 또한 실루아노와 오네시모 역시 “신실한 형제”로 불리움을 받았으며(골 4:9, 벧전 5:12),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였던 지도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충성)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행 11:24)고 기록되어질 정도로 성령 충만하여 양선과 충성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리더였기에 그의 사역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모범적인 영적 리더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들의 삶과 사역에 신실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음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영적 지도력의 핵심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스템이론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피터 셍게(Peter Senge)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장래에는 앞서 나가는 사람들, 자기 자신과 소속된 단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성심껏 헌신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될 것이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능력과 재능을 계발하고 지식을 섭렵하여 단체를 이끌어 나간다. 그들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생겨난다.”[63] 그러므로, 건강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리더의 신뢰성이 먼저 확보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데이비드 닐먼(영문명칭 기록-스티븐 코비의 신뢰의 속도책을 참고)의 언급대로 “신뢰는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원동력이다. 또한 기업과 개인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다. 신뢰가

63) Peter M. Senge, “leading Learning Organizations: The Bold, the Powerful, and the Invisible,” in *The Leader of the Future,* Ed. Frances Hesselbein, Marshall Goldsmith and Richard Beckhard, (San Francisco: Jossey-Bass, 1996), p. 45.

높으면 성공은 빨라지고 커지며 비용은 낮아진다."[64]

맥스 드 프리(Max De Pre)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들의 리더가 자신의 청렴함과 성실함을 조직을 향한 충성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보면서 신뢰를 쌓아 나간다."[65] 이와 같이, 신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킬 때에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 리더가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고 행동에 일관성이 없을 때 이 신뢰는 상실되어지고 마는 것이다. 성경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나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The integrity of the upright guides them, but the unfaithful are destroyed by their duplicity)(잠 11:3)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리더십의 전문가 스티븐 M. R. 코비(Stephen M. R. Covey)는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66] 제임스 C. 헌터는 신뢰를 형성하는 첫걸음은 "정직과 성실 위에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67]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의 리더십 교수인 에디 깁스(Eddie Gibbs) 역시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정당하게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리더십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권위는 리더라는 지위나 직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권위는 인품과 능력, 존경과 일관성 위에 쌓아 올린 신뢰에서 비롯된다"라고 이 충성의 열매가 리더십의 핵심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68]

그러나,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는 조직에서는 어떤 화려한 비전이나 계획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고, 신뢰 없이는 협력자나 추종자가 생겨날 수 없기에 이 신뢰가 효율적 리더십의 궁극적인 필요조건이 되어지는 것이다. 또한

---

64) Stephen M. R. Covey, *The Speed of Trust(신뢰의 속도),* 김경섭, 정병창 역, 김영사, 2009, p. 7.
65) Max De Pre, *Leading Without Power*, (San Francisco: Jossey-Bass, 1997), p. 127.
66) Stephen M. R. Covey, op. cit., p. 49.
67) James C. Hunter, op. cit., p. 121.
68) Eddie Gibbs, *Leadership Next(넥스트 리더십),* 이민호 역, 쿰란출판사, 2010, p. 98.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험담이나 중상모략, 편 가르기와 같은 행동들을 삼가는 것 역시 충성의 열매의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을 맡아 사역하는 영적 리더가 되려고 하면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딤전 3:11).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에게 주인이 그 집사람들을 맡긴다고 말씀하셨다(마 24:45). 또한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으며(눅 16:10), 진실한 자들(충성된 자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며(계 17:14), 충성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풍성히 맺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계 2:10), 충성한대로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계 22:12).

(8) 온유(Gentleness)

온유는 "겸손하고 타인에 대해 동정심이 있으며 하나님과 그 말씀에 복종함"을 의미한다.[69] 존 맥아더는 "온유는 온화함(gentleness)의 의미를 가지나 유순함(meekness)으로 더욱 번역 되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복수나 보복의 어떤 욕구가 없는 가운데 모든 모욕(무례)에 참을성 있게 수용하는, 겸손하고 너그러운 자세(humble and gentle attitude)"라고 정의하고 있다.[70] 그리고 그는 "신약에서 온유는 3가지 태도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골 3:12), 가르침 받을 수 있음(약 1:21),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려(엡 4:2)"라고 설명하고 있다.[71]

원래 이 단어는 잘 훈련되어 길들여진 말이나, 온순하게 길들여져서 주인의

---

69) Bruce B. Barton, Linda K. Taylor, David R. Veerman, and Neil Wilson, *Life Application Bible Commentary: Galatians(갈라디아서),* 김진선 역, 성서유니온선교회, 2006, p. 298.
70) John F. MacAthur, op. cit., p. 169.
71) Ibid.

명령을 이해하고 복종하게 되어진 사냥개에 대해서 사용되어진 것이며, "오류를 범한 부하에게 가차없이 대할 수 있으나 동정어린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사령관을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72] 따라서 이 온유는 겸손(마 11:29, 엡 4:1-2, 골 3:12)과 순종(약 1:20-21, 시 25:9, 사 61:1)과 관용(고후 10:1, 딛 3:2)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온유는 교만과 노여움과 반대이며, 이 온유의 근본적 의미는 자제(self-control)임을 언급하면서[73]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본성의 감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조정(control0하는 것이다. 우리가 온유를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을 완전히 예의를 갖고 대할 수 있고, 원한을 품지 않고 책망할 수 있고, 관대하게 다른 사람과 논의할 수 있고, 적의를 품지 않고 진실을 직면할 수 있고, 분을 내어도 범죄치 않을 수 있고, 양순하게 되면서도 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 온유는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그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는 미덕이다."[74]

성경은 온유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에게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그을 배려하고 존중하므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하고 배려했던 위대한 온유의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창 13:8-9). 구약시대에 가장 온유한 인물은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였다. 그는 자기 아내 십보라가 죽었을 때 고대 이디오피아 거민들 중 한 사람이었던 이방 사람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지만 모세는 그 고소자들에 대항하여

---

72) William Barclay, *The Beatitudes and The Lord's Prayer for Everyman*(*팔복 주기도문 강해*), 문동학, 이규민 역,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87, p. 48.

73) William Barclay, *Flesh and Spirit*(*성령의 열매*), 이희숙 역, 종로서적, 1988, pp. 126, 132, 133..

74) Ibid., p. 133.

자신을 전혀 변호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변호를 받았던 영적 지도자로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민 12:3)고 진정한 온유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 또 다른 온유의 사람으로 다윗을 들 수 있다. 그는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았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온갖 미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진정한 영적 지도자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신약에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가장 놀라운 온유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빌 2:6-8).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친히 말씀하셨고(마 11:29), 겸손하여서 작은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마 21:5). 또한 예수님 이후 가장 위대한 사역의 발자취를 남겼던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고난과 시험과 잘못된 비난과 오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교회 구성원들을 넓은 마음으로 대하였던 영적 지도자였음을 그의 서신이 보여주고 있다(고후 6:11, 10:1).

A. W. 핑크(Pink)는 온유함은 "그들의 동료에 의해 받게 되는 모욕과 무례함을 끈기있게 견디어 내게 하며, 성도들 중 지극히 작은 자로부터의 교훈과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고,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더욱 더 높이 평가하게 한다. 온유함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들을 흥분시키게 하는 자에 대한 분노를 견디어 낼 수 있게 한다. 즉, 그는 다른 사람들이 흥분하였을 때에 냉정을 유지한다. … 그러나 온유함을 약함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참된 온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불의에 굴복하거나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75]

그러면 이러한 온유함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소유하게 되어지는가? 해돈

로빈슨(Haddon Robinson)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스스로를 보고 우리의 감추어진 죄들을 고백할 때, 이것은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더라도 화를 내거나 분노를 품지 않을 것이다. … 이 변화된 태도로부터 온유함과 복종의 의식과 관대한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용서하신 것들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다.[76] 마틴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는 “우리는 모든 것, 곧 우리 자신, 우리의 권리, 우리의 대의, 우리의 장래의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일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특히 그러해야 한다. …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 스스로 겸손해져서 우리의 사람됨이 부족할 뿐 아니라 철저할 정도로 불완전함을 부끄럽게 고백해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의 원인이 되는 자아와 절교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사신 주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전부 소유하실 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다.[77]

성경은 영적 지도자는 이런 온유로서 사역에 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딤후 2:24),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하며(딤후 2:25),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하며(빌 4:5),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하며(갈 6:1),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함(빌 2:3)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런 온유함을 소유하게 될 때,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

75) A. W. Pink, *An Exposition of the Sermon on the Mount(산상수훈, 상)*, 지상우 역, 엠마오 출판사, 1986, p. 29.

76) Haddon Robinson, *The Christian Salt and Light Company(빛과 소금으로 사는 법)*, 김문철 역, 나침판, 2006, p. 76.

77) D. Martyn Lloyd-Jones, *Studies on the Sermon on the Mount(산상 설교집, 제1집)*, 문창수 역, 아가페 출판사, 1974, p. 93.

겸손과 순종과 관용의 자세를 지닐 수 있게 되어지며, "사랑과 순종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지 분개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며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최선의 길인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78]

성경은 이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사 57:15),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며(잠 3:4, 약 4:6, 벧전 5:5, 시 149:4), 소원을 들어주시고(시 10:17), 붙드시며(시 147:6), 높여주시고(벧전 5:6, 잠 15:33, 29:23), 지도해 주시며(시 25:9),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79] 풍부한 화평(great peace)으로 즐거워하게 하실 것(시 37:11, 마 5:5)을 약속하고 있다. 오브리 맬퍼스(Aubrey Malphurs)는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을 비롯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리더십이란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히 섬기는 것임을 가르치신다. … 그리스도인 리더는 권력을 남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이용하지 말고 겸손하게

78) William Barclay, op. cit., p. 46.

79) 온유한 자가 땅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1)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어진다(존 맥아더). (2) 온유한자가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신을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바라보게 되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감사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D. A. 카슨). (3) 온유한 자는 그가 지상에서 소유한 것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것을 더욱 더 기쁘게 누리게 되어지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의미이다(시 37:16, 잠 15:16).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땅에 대한 영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가지게 될 권리를 몰수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되돌려 주셨다는 의미로서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후 6:10)라고 고백하게 되어졌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천국을 상징한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처럼 온유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졌음을 의미한다(A. W. 핑크). (4) 온유한 자는 땅위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축복에로 들어갈 수 있으며,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된다는 의미이고, 이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이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평화를 소유하게 되며, 자신을 잘 다스리므로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이다(윌리엄 바클레이).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80]

(9) 절제(Self-Control)

절제(엥크라테이아)는 죄악된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제는 제어하는 욕구와 욕망과 관계가 있다."[81] 이 절제는 육체적 충동들을 통제하며 균형있는 삶을 유지해 나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고전 7:9, 9:25). "절제의 반대는 무절제와 불균형이다."[82] 맥시 더남(Maxie Dunnam)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절제는 기쁨이 없는 금욕주의도 아니며, 자존심으로 가득한 오만도 아니다. 그것은 건전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 무절제는 두 가지로 드러난다. 하나는 자신의 일부가 전체를 지배해 버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알콜 중독과 다른 중독증 같은 것이다. 중독된 사람은 한 가지 중독된 욕망에만 지배를 받는다. … 그 한 가지의 욕망이 다른 모두를 소모해 버린다. … 자신의 일에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가정에서 갈등을 갖거나 가족이 전부이다 보니 개인의 성취욕과 갈등하거나, 서로 갈등을 갖는 욕망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나 상당한 기간 동안 무절제를 경험하게 된다. ... 무절제는 자신의 일부가 자기 자신의 전체를 단순히 지배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자아의 분열일 수도 있다.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리저리 마구

---

80) Aubrey Malphurs, *Being Leaders(리더가 된다는 것은)*, 안정임 역, 국제제자훈련원, 2008, pp. 47-48.

81) John F. MacArthur, op. cit., p. 169.

82) Maxie Dunnam & Kimberly Dunnam Reisman, *The Workbook on Virtues and the Fruit of the Spirit(성령의 열매와 생활)*, 박재승 역, 도서출판 세복, 2001, p. 93.

> 끌려 다니게 될 수 있다. 한 가지가 지나쳐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여라 가지가 너무 과하여 우리를 해체해 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은 욕구들로 가득 찰 때 우리는 무절제의 늪으로 빠진다. 우리는 중심을 찾아서 삶의 질서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갖기 어렵고 결국 우리는 파멸하게 된다. … 절제하는 사람은 자신을 안다.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에 우선순위와 목표를 세운다. 절제하는 사람은 보상이 늦어지는 것도 이해하여 그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안다. 절제하는 사람은 목표달성을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현명하게 결정한다. 절제하는 사람은 그들 마음에 질서를 위해, 기꺼이 취사 선택하고 그것에 헌신한다. 절제는 균형을 찾는 기술이다.[83]

그러므로 이 절제는 욕망의 통제와 올바른 습관 배양(규모있는 삶)과 우선순위의 설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절제는 육체의 일과 육체의 욕망과 정욕에 대한 자제(self-control), 자기 훈련(self-discipline), 자기 부정(self-denial)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존 파이퍼는 "절제라는 표현에는 분열된 자아의 싸움이 전제되어 있다. 즉 자아가 즐기기보다는 다스려야 하는 욕망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당신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자아는 매일 부인해야 할 또는 다스려야 할 욕망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고 이 절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84]

구체적으로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가?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제어하지 아니할 때 다툼과 분쟁에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며(약 4:1),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어지고(롬

83) Ibid., pp. 93-94.

84) John Piper, *Life as a Vapor(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정현 역, 도서출판 디모데, 2006, pp. 142-143.

13:14),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어지며(고전 7:5),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고(약 4:3), 색욕을 쫓게 되어지며(살전 4:5), 규모없이 행하게 되어지고(살후 3:6), 영혼에 손상을 받게 되어지며(벧전 2:11), 언어생활에 실수하게 되어지고(잠 10:19), 원망 불평하게 되고 자기 자랑과 아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며(유 16),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됨(약 1:15)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제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게 되어질 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딛 2:12), 예수님과 같이 유익한 습관을 형성하게 되어지며(눅 22:39), 영성개발이 이루어지고(벧후 1:6), 사역에 승리하게 되어진다(고전 9:25). 그래서 성경은 절제하지 못하는 마지막 때(딤후 3:3)에 부름받은 영적 리더의 자격으로 절제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딤전 3:2, 딛 1:8)."

이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던 신약시대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행한 그의 고별 설교 가운데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행 20:33-34)라고 말하므로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범사에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욕심을 제어하고 절제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런 절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찰스 스펄전(C. H. Spurgeon)은 "나의 서재를 채우거나 모임을 조직하거나 특별한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해도 나 자신 가꾸기를 소홀히 한다면 헛된 일입니다. 책과 고뇌, 조직들은 다만 나의 거룩한 소명을 위한 작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과 혼, 몸이 바로 거룩한 봉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나의 영적 능력과 나의 내적인 생활이 바로 전쟁을 위한 도끼요 무기인 것입니다"라고 영적 리더의 궁극적인 성공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제대로 잘 관리하는데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85] 따라서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 사역에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신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파괴적인 습관과 행위를 변화시켜서 사명 수행에 적합한 규모있는 습관과 행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 훈련에 더욱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승리에 초점을 맞추는 영적 리더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기통제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야함을 깨우쳐 주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2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고 고백하므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추구하였지만 동시에 자기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실천하였던 영적 지도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초대교회 당시 거짓교사들은 정욕에 사로잡혀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는 불행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유다서가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유 4,7,10,11,16,18).

존 파이퍼는 철저한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대해서 단지 아니라고 말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더 강한 능력과 즐거움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아니라고 말해야 하며, 그리스도가 더 강한 능력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절제력을 발휘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86] 윌리엄 바클레이는 "자기 훈련은 힘을 얻는 방법이다. 자기 숙달은

85) C. H. Spurgeon, *Lectures to My student(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생명의 말씀사, 1982, p. 10.

86) John Piper, *Life as a Vapor(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정현 역, 도서출판 디모데, 2006, pp. 143-144.

능력에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진실로 사람들 가운데 왕이다. …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을 다스릴 때만이 또한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절제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고 있다.[87] 참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만이 그의 행동과 삶이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다.

4. 결론(Conclusion)

리더십의 본질로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능력있는 리더의 자질 가운데 성품이 근본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성숙한 성품이 없이, 카리스마만 있거나 이름만 가지고 있는 리더는 리더로 불릴 자격이 없으며, 성품과 역량은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에야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성과를 거두게 되어짐을 가르쳐 주고 있다.

앤디 스탠리(Andy Stanley)의 지적대로 "건강하고 오래된 관계는 온전한 성품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갈등 많고 단명한 관계는 성품 결손의 증거다. 갈등 많고 오래된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대인관계는 성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88] 이와 같이, 성품에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되면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결국 사역하는 그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방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세계적인 리더십 훈련기관(J.D. Hunter Associates, LLC)의 책임자로

87) William Barclay, op. cit., p. 53.

88) Andy Stanley, *Louder than Words(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윤종석 역, 도서출판 디모데, 2005, p. 37.

있는 제임스 C. 헌터는 사랑이 섬기는 리더십의 본질임을 밝혀주고 있다. 그는 리더십의 8가지 본질을 1) 인내(자제력의 표현-오래 참음), 2) 친절(타인을 향한 관심과 이해, 격려의 표현-자비), 3) 겸손(자만심, 거만함, 가식없이 보이는 것 또는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온유), 4) 존중(사람을 소중한 존재처럼 대하는 것-자비), 5) 무욕(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킴-양선), 6) 용서(적대감을 극복하는 것-자비), 7) 정직(속이지 않는 것-충성), 8) 헌신(선택에 충실한 것-충성)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이 모든 본질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과 일치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89]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사랑의 여러 가지 특성들과도 일치되어지고 있다.[90] 즉 "사랑은 오래참고(오래 참음), 사랑은 온유하며(자비), 시기하지 아니하며(화평),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온유), 교만하지 아니하며(온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자비),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양선), 성내지 아니하며(화평),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자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충성),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희락), 모든 것을 참으며(오래 참음), 모든 것을 믿으며(충성), 모든 것을 바라며(절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충성)." 또한 신약성경 중 빌립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 처음 3가지 열매들(사랑, 희락, 화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베드로전서는 그 다음 3가지 열매들(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관련이 있으며, 유다서는 마지막 3가지 열매들(충성, 온유, 절제)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리더로서 사역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가장 온전히 맺으신 분이셨기 때문임을 복음서가 이를 보여주

89) James C. Hunter, op. cit., pp. 96-128.

90) 폴 시다(Paul Cedar)는 고전 13장 4-7절은 섬기는 지도자에 대한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정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 즉 성숙한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op. cit., pp. 35-36.

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그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사람이 예수님을 참으로 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이야말로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할 때, 영적 리더의 성품개발은 필수적인 것이다. J. I. 패커(Packer)가 언급한 대로 "성령의 열매 자체는 일련의 행동, 반작용의 습관"이라고 한다면, 더욱이 영적 지도자에게 이런 거룩한 습관의 형성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91]

그러나, 이런 성품의 9가지 열매들은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자력으로 개발하거나 마스터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과 지배를 받을 때에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질 수 있는 영적 리더의 필수적인 성품인 것을 성경은 깨우쳐 주고 있다. 폴 시다(Paul Cedar) 역시 "섬기는 지도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쫓도록 격려하며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까지 양육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의 종으로 부름 받는다. …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지도자 직분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우리가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인격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고 그 분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섬기는 지도자는 태도[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 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일이 아니라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적절히 정리해 주고 있다.[92]

그러므로 영적 리더로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육의 사람이 죽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풍성히 맺어갈 때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로서

---

91) J. I. Packer, *Keep in Step with the Spirit(성령을 아는 지식)*, 서문강 역, 새순출판사, 1986, p. 144.

92) Paul Cedar, op. cit., pp. 108, 124, 128.

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John R. W. Stott)가 20년 가량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 했듯이, 영적 리더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과제요 책임임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Reference List)

Bailey, Mark L. *To Follow Him: The Seven Marks of a Disciple(제자도의 7가지 핵심)*. 개정판, 도서출판, 2011.

Barclay, William. *The Letters to the Philippians, Colossians and Thessalonians*.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75.

_____. *The Beatitudes and The Lord's Prayer for Everyman(팔복 주기도문 강해)*. 문동학, 이규민 역,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87.

_____. *Flesh and Spirit(성령의 열매)*. 이희숙 역, 종로서적, 1988.

Barton, Bruce B., Linda K. Taylor, David R. Veerman, and Neil Wilson. *Life Application Bible Commentary: Galatians(갈라디아서)*. 김진선 역, 성서유니온선교회, 2006.

Coolidge, Calvin. *The New Encyclopedia of Christian Quotations*. comp. Mark Water, Grand Rapids: Baker Books, 2000.

Cedar, Paul. *Servant Leadership(섬기는 지도자)*. 김성웅 역, 도서출판 햇불, 1992.

Covey, Stephen R. *Principle-Centered Leadership(원칙 중심의 리더십)*. 김경섭, 박창규 역, 김영사, 2001.

_____. *The Speed of Trust(신뢰의 속도)*. 김경섭, 정병창 역, 김영사, 2009.

De Pre, Max. *Leading Without Power*. San Francisco: Jossey-Bass, 1997.

Dunnam, Maxie., & Kimberly Dunnam Reisman. *The Workbook on Virtues and the Fruit of the Spirit(성령의 열매와 생활)*. 박재승 역, 도서출판 세복, 2001.

Edwards, Jonathan. *Charity and Its Fruits(사랑의 열매)*. 서문강 역, 도서출판 엠마오, 1984.

Garrod, G. W. *The First Epistle to the Thessalonians*. London: Macmillan, 1899.

Gibbs, Eddie. *LeadershipNext(넥스트 리더십)*. 이민호 역, 쿰란출판사, 2010.

Grudem, Wayne.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s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Henry, Matthew.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Colossians and Ⅰ&Ⅱ Thessalonians.* Korean Trans. Ky Dok Kyo Moon Sa, 1979.

Hiebert, Edmond D. *1 & 2 Thessalonians.* Chicago: Moody Press, 1992.

Hunter, James C. *The World's Most Powerful Leadership Principle(서번트 리더십)*. 실전 매뉴얼 편, 김광수 역, 시대의 창, 2006.

Lloyd-Jones, D. Martyn. *Studies on the Sermon on the Mount(산상 설교집, 제 1집)*. 문창수 역, 아가페 출판사, 1974.

MacArthur, John F.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Galatians.* Chicago: Moody Press, 1987.

Malphurs, Aubrey. *Being Leaders(리더가 된다는 것은)*. 안정임 역, 국제제자훈련원, 2008.

Packer, J. I. *Keep in Step with the Spirit(성령을 아는 지식)*, 서문강 역, 새순출판사, 1986.

_____. *Hot Tub Religion(제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특성)*. 서문강 역, 여수룬, 1989.

_____. *God's Plan For You(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정옥배 역, 두란노, 2002.

Packer, James I., and A. M. Stibbs. *The Spirit Within You(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정다올 역, 생명의 말씀사, 2010.

Pink, A. W. *An Exposition of the Sermon on the Mount(산상수훈, 상)*. 지상우 역, 엠마오 출판사, 1986.

Piper, John. *Desiring God(여호와를 기뻐하라)*. 김기찬 역, 생명의 말씀사, 1998.

_____. *The Roots of Endurance(인내)*. 신원섭 역, 좋은 씨앗, 2005.

_____. *When I Don't Desire God(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 전의우 역, IVP, 2005.

_____. *Life as a Vapor(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정현 역, 도서출판 디모데, 2006.

Robinson, Haddon. *The Christian Salt and Light Company(빛과 소금으로 사는 법)*. 김문철 역, 나침판, 2006.

Senge, Peter M. "leading Learning Organizations: The Bold, the Powerful, and the Invisible," in *The Leader of the Future*. Ed. Frances Hesselbein, Marshall Goldsmith and Richard Beckhard, San Francisco: Jossey-Bass, 1996.

Spurgeon, C. H. *Lectures to My student(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생명의 말씀사, 1982.

Stanley, Andy. *Louder than Words(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윤종석 역, 도서출판 디모데, 2005.

Stanley, Charles F. *Finding Peace(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 평안)*. 이남하 역, 요단, 2004.

Stott, John R. W. *The Contemporary Christian: Applying God's Word to Today's World*.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2.

Wright, Walter C. Jr. *관계를 통한 리더십(Relational Leadership)*. 양혜정 역, 예수전도단, 2002.

권호. *비상, 영성과 전문성으로 날아올라라!* 생명의 말씀사, 2010.

배성호. *두뇌 프라이밍*. 두레시대, 1996.

신현만. *능력보다 호감부터 사라*. 위즈덤하우스, 2011.

이병철. *성서원어 헬 한 완벽사전 (I)*. 브니엘 출판사, 1988.

존 맥스웰 외 29인. *효과적인 평신도 사역을 위한 30가지 양육전략*. 김창대 역, 기독신문사, 2001.

한영철. *성령의 열매에 관한 주석적 연구*. 도서출판 알돌기획, 1997.
헨리 나우웬. *상처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 두란노, 1999.

성서원어대전: 신학사전 (II). 이병철 편, 한국성서 연구원, 1985.
성서원어대전: 헬 한 완벽사전 (III). 이병철 편, 한국성서 연구원, 1989.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고전 제 10-16장. 제자원, 2006.